

광주 3조 3858억·전남 9조 502억원...내년 국비 확정

광주 AI·미래차 등 주요산업 증액 요구 미반영...전년 대비 4.4%↑ 전남 64개 사업 3000억 추가 반영 무산...R&D 예산 증액은 성과

광주시에 내년도 국비 예산 3조 3858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과 미래차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증액 요구가 미반영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전남도 역시 야당 주도로 이뤄진 현정사상 초유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통과에도 2년 연속 9조 원 시대를 지켰다고 자평했지만, 최소 3000억원 이상을 추가 반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시·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 당국과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비는 늘었지만, 주요사업 증액은 불발=1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도 국비 예산은 3조 3858억원으로, 2024년도 대비 4.4%(1412억원) 증액됐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과 비교하면 614억원이 추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 여파 등으로 국회에서 증액 없는 감액 예산안이 일괄 통과하면서, 광주의 미래가 걸린 AI 2단계, 미래 차, 아시아 중심도시 특별회계 등 지역 현안 사업 추가 증액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광주시는 AI 2단계 사업에 속하는 인공지능 전환(AI) 실증 벨리 조성 사업 관련 내년 신규 사업을 위해 957억원을 추가 요청했으나 정부와 국회 단계에서 모두 미반영됐다.

또 2027년 개교 목표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 예산도 200억원 증액 요구가 무산돼 개교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설계 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국비 미확보 등으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인 미래 차 부품 인증 센터 구축 예산 24억원과 자동차 부품 재제조 체계 구축 예산 5억원 역시 전액 미반영됐으며, 갈길 바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비용도 광주시 요구액 2114억 중 정부 단계에서 1399억원만 증액됐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약속했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국비 증액도 시 요구액 32억원 중 11억만 반영돼 가뜩이나 부족한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광주시는 2호선 1단계 2026년 말 개통을 앞두고 완공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나마 위안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증액이다.

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 확장 367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453억원 등은 당초 파악된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됐으며, 영산강 자전거마을 시험 도시 구축 10억원, AI 활용 지원을 위한 화합물 반도체 제조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 27억 5000만원 등 지난 8월 정부안 발표 이후 확정된 공모사업 등 19건 232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2년 연속 9조원 시대-3000억원 추가 반영 노력은 무산=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8조 8928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



“세상에 온기 나눔” 광주 자원봉사자대회

11일 오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자원봉사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해 157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9조 50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하지만 전남도 역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감액 예산 일괄 통과 기조에 따라 3000억원(64건) 이상을 추가 반영하려는 노력은 무산됐다.

전남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뿐 아니라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59개 신규 사업(총 사업비 5조 4592억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2073억원), 불모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약했던 R&D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고히하는 계기가 됐다

는 평가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2692억원(총사업비 2조 810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90억원(총사업비 2조 1366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기본계획수립비 37억원(총사업비 1조 5965억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설계비 40억 원(총사업비 1700억원) 등이

다.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섬섬백리길(39km) 구간 내 여수 화태-백야 간 도로(2.76km/27년 준공) 건

설 사업비(693억)도 반영됐고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도로(4.41km/27년 준공) 건설 사업비(461억)도 확보해 애초 목표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수·축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설계비 6억원(총사업비 300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한 점과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비 32억원(총사업비 248억원) 확보 등이 꼽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중국 심천 농식품박람회와 교류 협약

우수 농업기업 12곳과 수출 협약

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지난 9일까지 3일간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 및 농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심천 농식품 박람회는 올해 2회째로, 심천시 화거신국제회전그룹 유한공사가 주관했다. 심천국제컨벤션센터에서 1800개사가 참가해 15만명이 방문했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 농업의 글로벌시장 확대를 위해 우수 농업 기업 12개사와 함께 전남홍보관을 운영하고, 두 박람회 간 상호교류 협약을 해 전남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협약에 따라 두 박람회가 농업 분야 혁신 기술과 상품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농업인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국제농업박람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남도와 전남창조경제센터가 공동으로 추

진한 해외박람회 참가단에는 진도, 나주, 해남, 고흥의 기업과 전남식품수출협회 등 12개사가 선정돼 중국 현지에서 남도 식품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행사장에서는 해남 고구마, 배추, 된장 등 전남 농산물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도군은 서조수출무역유한회사 등 2개의 중국 바이어사와 수출협약을 해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장터, 시·군 상생기획전으로 판로 확대 견인

지자체 쇼핑물 상생모델로 주목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물 남도장터가 도내 시·군과 협업을 진행하는 '상생기획전'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11일 재단법인 남도장터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남도장터와 도내 11 시·군이 상생기획전을 진행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기획전은 남도장터 쇼핑물 전용관을 통해 시·군별 우수 농수축산물을 20~40% 할인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김치, 홍어), 여수(돌산갓, 해풍썩), 순천(누룽지, 녹차), 광양(매실 가공품), 보성(차, 쌀), 화순(미니파프리카, 대추방울토마토), 강진(쌀, 흑염소), 함평(한우, 쌀, 잡곡), 장성(쌀, 김치, 돼지고기), 완도(전복, 김, 다시마), 진도(미역, 울금, 쌀) 등이 줄줄이 흥

행했다. 남도장터의 전국적인 인지도와 인프라를 활용해 단순한 상품판매를 넘어 지역 축제 및 관광사업 홍보까지 병행하면서 상생기획전은 지자체 쇼핑물의 모범적인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기획전이 오픈 당일 매진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남도장터는 내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 상생기획전만으로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김경호 재단법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남도장터가 앞장서 시·군 상생기획전 같은 통합·연계 마케팅을 꾸준히 늘려, 모든 시·군의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지역먹거리 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

2년 연속 농식품부장관 특별상

광주시가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1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장관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지역먹거리 계획과 관련된 지자체의 실천 노력과 확산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59개 시·군을 대상으

로 농촌·도농 복합형 평가와 69개 자치구를 대상 도시형 시범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사장상에 이어 올해는 농식품부장관 특별상을 받았다. 광산구도 올해 한국농식품유통공사 사장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과 도·농 협력형 먹거리 소비기반 확대, 건강간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Green Goong Prime Ever 120 advertisement featuring a box of the product and a woman's face. Text includes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an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